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 8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 : 그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 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11. 이лер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2.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3.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제 11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람군대가 엘리사를 불잡기 위해서 아람왕이 도단성에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애워싸게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처음에 아람왕은 엘리사를 불잡으려 한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번번히 실패하게됩니다. 실패의 원인이 아랍왕이 북이스라엘왕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다니는 길에 복병을 두어 왕이 그쪽으로 지나갈때 왕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을 엘리사가 알고 북이스라엘 자기 왕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방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랍왕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알고보니 엘리사가 모든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것을 알고 엘리사를 불잡기 위해 엘리사의 위치를 알아보니까 신하들이 도

단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 19km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불잡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과 병거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밤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날이 밝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수종을 드는 사원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군인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포로로 불잡힐걸 염려하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말씀 -----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답변은 16절을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 하지말라 저와 함께한 자보다 나으니라"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그런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환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환은 두려워한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엘리사도 알고잇을텐데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환은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보는 눈은 밝았지만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눈은 보지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갈때 그들은 홍해 앞에 거의 다 왔을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그 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습만 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그 모습도 같이 본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말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있을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함께한 자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엘리사의 사환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잇으면서 광풍과 파도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환경이 처해지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것을 믿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육적인 눈은 잘 보이지만 그

믿음의 눈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처럼 이 엘리사의 사환도 육

적인 눈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말은 엘리사는 육적인 눈만 갖은 사환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군대만 본것이 아니라 아람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평안을 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또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거예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수중드는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는 수중드는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그다음에 보면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성을 두르고 있었던게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모든것을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사 "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잇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벌려서 승리를 하고싶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때문에

다윗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작대기하나와 물맷돌을 들고 나섰던 것은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하리라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손에 불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는 보호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천군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잇을때

하나님의 백성을 적들이 죽이려고 할때 그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적들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찾겠습니다. –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해에서 군사 18만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은 다 알고있지요, 앗수르가 사메리왕이 히스기야 시대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을 그냥 다 죽였습니다. 전쟁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이 있을찌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처넣어서 죽여버린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네 대적들이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네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높고 튼튼하고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길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 왜 왔을까요? ,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일이 있을때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나, 군대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못한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처한 현실만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일이 있을때마다 좌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탄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 하신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천군천사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불잡히고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하면 12영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죽일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겁니다.

12영, 1영은 보병 6100명 마병 726명 입니다. 그때당시 이정도 군인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12영 더되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어떤 환경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몇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부모님입니다. 자신을 드려서 사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기 위해서 한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단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믿지못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환경, 직장생활, 혹시 배우자의 관계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신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크게 하려고, 우리를 정금처럼 더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때 우리는 그런 환경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사환을 열어주기 전에 사환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육의 눈을 가지고 볼수 있는

환경을 알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믿음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혹시 큐티해보셨습니까? 혹시 큐티중에 지난번 ,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족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지에 적어서

식탁이나 어딘가에 붙여놓고 밥을 먹기전에 한번씩 암송, 또는 읽는 내용이 큐티

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놓고 큐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군대가 진을 치고 , 또 그 대적이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때 어떤 환경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함,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 우리가 보는 이환경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 .

말씀 -----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속에 처했습니다. 처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안에 잇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환경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현실상황을 보는 사람은 그 현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근심했다가 할 거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하고 두번째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아야합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대적의 수가 너희보다 훨씬 많더라도, 아주 극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그 환경속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강풍이 불었을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강풍이 몰아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같이 계시려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나를 위하려고 성막을 짓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운데 함께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사 세신바 되었나니, 항상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건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내용가운데에서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자녀인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엘리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완전히 둘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군대는 또 있어요, 그 불말, 불병거, 천군천사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 가운데 한 지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여기 보기전에 출애굽기 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백삼십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군대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냅니다 . 그리고 군대의 속해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싸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쫓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신분이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얹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군사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얹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얹매이면 이미 군사가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할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사탄마귀와 전쟁을 치를때 하나님은 천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전쟁통에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쟁에는 나를 보내는겁니다. 우리가 사탄마귀의

유혹에 위험할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 복음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기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군천사가 수행하는 그 전쟁보다 우리가 이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루는 영적 전쟁은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적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신 겁니다.

보이지않은 하나님의 군대의 이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